

장수시대

◎ 김승욱(발행인)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약 만 명 정도였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세 시대를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40%)이 축복이라는 응답(32%)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약 만 명 정도였 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의 4만 명(2009년)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100세 이상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세 시대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40%)이 축복 이라는 응답(32%)보다 많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이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 다. 유럽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쇠퇴한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고령층 을 부양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GM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 가 퇴직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회사가 평생 지급하기로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 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편 지 30년이 되어, 이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 고, 그러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중이 너무 급속하게 높아져 생산성이 급속하 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위생, 암 정복, 장기 이식, 호르몬 요법, 유전자 치료의 5단계 수명확명이 급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신진국도 이제 겨우 위생단계를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4단계 혁명이 현실화되면 고령화 인구는 세계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재활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활병원의 대부분 환자는 상체는 멀쩡한데 하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체를 사용 못 하면 혼자 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 한 일거리나 생활수단 마련 등을 위한 인생 2막 준비도 필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도 작 시대에 들어섰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숭이의 머리와 몸을 교환하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술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발전에 대해서 법적, 제도 적, 사상적 뒷받침이 없으면 어떤 끔찍한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D(경제학 석사). 경제개혁의 화성영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전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와 실행위원장.

